

해방전후사의 인식

일국사적 관점
민족 지상주의·민중혁명 필연론
해방 직전부터 1950년대까지 연대별 분류없이 6권에 담음
이데올로기적 편향, 운동사·이념사
친일 대 반일/애국 대 매국/수탈과 핍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북한의 일제 청산은 완벽했다
이승만과 미군정에 분단과 한국전쟁 책임 있다
지주제가 온존했고 영세 농민만 만들어냈다
개인적 탐욕으로 분단에 앞장섰고 장기집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외세에 좌우된 어둡고 정체된 시기

관점

역사관

연대별 분류

이념적 편향

일제시대 및 친일파 문제

일제 잔재 청산

분단과 한국전쟁

농지개혁

이승만 정권

1950년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비교사적 관점

탈민족주의나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은 실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해방 전사를 다룬 1권과 해방 후사를 다룬 2권으로 분류

당시 사회를 실증적으로 서술

이분법으로 재단되지 않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면 탐구

남북한 모두 일제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이 해방 전후사를 지배했다

미·소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 기인한 것

농지 개혁의 성공 덕분에 남침한 북한군이 기대했던 민중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미방위조약, 수입대체산업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을 위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키아벨리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확립하고 국민교육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료:책세상〉